

대의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공사다망하신줄 익히 알면서도 역대회장님을 비롯한 대의원여러분을 재차 모시게 되어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자리가 한국건축계와 우리 협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이기에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각오와 결의로 개혁에 동참해 주길...

The Firm Determination to Accomplish
the Reformation

金圭泰 /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by Kim Gyu-Tae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작금의 우리 현실은 세계각국의 경쟁자들에게 우리의 시장을 열어주고 그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적자생존의 치열한 경쟁에 대응한 경쟁력강화를 위해 전 건축계 차원에서 전력을 기울여야 할 중대한 시점에, 이 기회를 틈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국내에서 설계검업을 목적으로 한건연은 중합건설업면허제 도입을, 여타 건설업체는 건축사법 23조의 개정을 관계요로에 강력히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이의 저지를 위해 협회의 힘을 소모해야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정부는 부실공사방지를 앞세워 건축사업무와 관련된 법령들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의 대응노력에도 협회의 정력을 소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우리사회 곳곳에서 구호처럼 쏟아지고 있는 세계화, 선진화가 말해주듯이 우리 건축계의 새로운 변화와 변신 또한 우리의 생존을 위해 필연적으로 실천해야 할 과제가 되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모두의 새로운 각오와 결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화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생존조건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시장개방이라고 하는 또하나의 새로운 환경변화는 그동안 변화와 변신을 외면한 채, 기존의 틀에만 안주하려해 왔던 우리 건축의 낡은 틀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미 지난 임시총회에서 이렇듯 위기에 처한 우리 건축의 어려운 현실을 걱정하면서 우리 건축계가 거듭나야 하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강력한 개혁 추진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협회는 대의원 여러분의 의지를 받들어 지난 3개월간 개혁추진위원회에서 연구, 보완을 거쳐 대의원 여러분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오늘의 안건들은 지난 3월 임시총회때 제시된 안의 미비점들을 보완하여 단기·중장기로 구분한 계획들 가운데 단기계획만을 담고 있으며 오늘 상정되지 않은 중장기안에 대해서는 차기 총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개혁추진을 함에있어 최소의 인력과 예산으로 최대의 사업성과를 거두는 것을 목표로, 우선 95년도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4억원, 특별회계 10억원을 건축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회비제도 개선을 비롯한 연금제도, 공제사업, 정관개정 등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시급히 대처해야 할 과제들을 단기사업으로 추진토록 하였으며, 이러한 단기사업을 기반으로, 한국건축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성격의 사업들을 중장기 사업으로 구분, 실천 가능성에 역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회원모두의 주된 관심사가 되고 있는 연금제도에 대해서는 연금특별위원회가 오랜기간 신중한 협의를 거쳐 최상이라고 판단해 주신 안을 오늘 여러분께 제시하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대의원 여러분!

우리의 개혁은 지난 30년간 지속 되어온 건축계의 문제점을 청산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낡은 틀을 벗겨내고 스스로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시켜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한 “새로운 틀”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당위성 차원을 넘어 우리가 필연적으로 성취시켜 나가야 할 절대절명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을 있게한 제도나 체제라 할지라도 그것이 시대의 흐름에 뒤쳐져 미래의 행보를 막는 걸림이 된다면 과감히 떨쳐버리고 현실에 맞게 재정비

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더이상 지난 시대의 안일과 소모적 논쟁으로 우리가 겪어왔던 갈등과 혼란을 되풀이 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부적 합의와 결집으로 우리의 개혁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전 회원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자리가 한국건축의 오늘을 지켜온 우리 건축사들의 일대개혁으로 한국건축의 세계화를 향한 새로운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엄숙한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협회는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화합과 결속으로 우리의 내일을 열어가기 위한 견고한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과 협회의 결집된 힘의 과시를 위해, 오는 9월 28,29 양일간 제주도에 서 「창립30주년기념행사를 겸한 교육」과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을 개최코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을 개최코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 열리는 행사입니다만 전 회원이 참여하여 모두가 한마음으로 새시대에 우리의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 협회가 이 어려운 시기를 곳곳이 헤쳐나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모으는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대의원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성원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대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오늘의 총회가 큰 결실을 맺게되길 기대하며, 끝으로 회원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드리면서 개회사에 대신코져 합니다.

감사합니다.

1995. 6. 22